

재능 문제가 아니다.

방법이 틀렸을 뿐이다.

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는가.

40문항이다. 맞고 틀리는 게 없다. 아이를 관찰한 대로 고르면 된다.

이 검사가 하는 일은 하나다.

네가 **뭘 모르는지 모르는** 상태를 끝내는 것.

쓰는 법

- ① 40문항에 1~5로 표시한다.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.
- ② 채점표에 옮겨 적고 축별 소계를 낸다.
- ③ 막대를 칠하고, **가장 짧은 축**에 동그라미를 친다.

1 전혀 아니다 · 2 아닌 편 · 3 보통 · 4 그런 편 · 5 매우 그렇다

(R) 표시 문항은 채점할 때 점수를 뒤집는다. 채점표에 설명이 있다.

THERE IS ANOTHER WAY

어나더 스터디 · 무료 배포 · 자유롭게 복사·공유해도 됩니다.

		1	2	3	4	5
1	아이가 새 과목을 시작할 때, 공부 방법부터 찾아보고 시작한다.	☐	☐	☐	☐	☐
2	아이는 문제를 맞히려고 풀기보다 자기 약점을 찾으려고 푼다.	☐	☐	☐	☐	☐
3	아이는 이해한 내용이라도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여긴다.	☐	☐	☐	☐	☐
4	아이는 교과서 개념과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안다.	☐	☐	☐	☐	☐
5	아이는 읽는 속도를 훈련으로 올릴 수 있다고 여긴다.	☐	☐	☐	☐	☐
6	아이는 복습할 때 교재를 덮고 백지에 적어본다.	☐	☐	☐	☐	☐
7	아이는 과목에 따라 공부하는 방식을 바꾼다.	☐	☐	☐	☐	☐
8	아이는 틀린 이유를 '몰라서'와 '생각이 틀려서'로 나눠 말한다.	☐	☐	☐	☐	☐
9	아이는 시험이 틀리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임을 전제하고 푼다.	☐	☐	☐	☐	☐
10	아이는 읽고 나면 덮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친다.	☐	☐	☐	☐	☐
11	아이는 혼자 힘들게 이해한 것이 더 오래 간다고 여긴다.	☐	☐	☐	☐	☐
12	나는 학원에서 사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관리와 수준 파악이라고 본다.	☐	☐	☐	☐	☐
13	나는 아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. (R)	☐	☐	☐	☐	☐
14	아이는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풀이 경로를 먼저 생각한다.	☐	☐	☐	☐	☐
15	아이는 이해 안 되는 문단은 넘기고 갈 줄 안다.	☐	☐	☐	☐	☐
16	아이는 배운 것을 남에게 설명해보려 한다.	☐	☐	☐	☐	☐
17	아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.	☐	☐	☐	☐	☐
18	아이의 오답노트에는 '왜 그렇게 생각했는지'가 적혀 있다.	☐	☐	☐	☐	☐
19	아이는 헛갈릴 때 근거가 있는 선지를 찾으려 한다.	☐	☐	☐	☐	☐
20	아이는 어려운 지문을 먼저 훑고 나서 정독한다.	☐	☐	☐	☐	☐

21	아이는 이미 아는 내용도 읽기 전에 다시 확인한다.	☐	☐	☐	☐	☐
22	나는 공부 머리가 쓰는 만큼 발달한다고 생각한다.	☐	☐	☐	☐	☐
23	아이는 짝어서 맞힌 문제를 맞힌 것으로 넘긴다. (R)	☐	☐	☐	☐	☐
24	나는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.	☐	☐	☐	☐	☐
25	나는 아이가 못 외우는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배경 지식에서 찾는다.	☐	☐	☐	☐	☐
26	나는 국어 독해력이 수학·과학 성적까지 좌우한다고 본다.	☐	☐	☐	☐	☐
27	아이는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다.	☐	☐	☐	☐	☐
28	아이는 자기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.	☐	☐	☐	☐	☐
29	아이는 맞힌 문제라도 오래 걸렸으면 다시 정리한다.	☐	☐	☐	☐	☐
30	아이는 표현이 달라도 같은 뜻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며 읽는다.	☐	☐	☐	☐	☐
31	아이는 백지에 적다 빠진 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적는다.	☐	☐	☐	☐	☐
32	나는 아이의 공부 시간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본다.	☐	☐	☐	☐	☐
33	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제대로 분석하는 게 낫다고 본다.	☐	☐	☐	☐	☐
34	아이는 모의고사에서 파트별로 몇 분 걸리는지 알고 있다.	☐	☐	☐	☐	☐
35	아이는 문학을 기법 찾기보다 의미 잡기로 읽는다.	☐	☐	☐	☐	☐
36	아이는 외울 때 그림·이야기·어원을 붙여서 외운다.	☐	☐	☐	☐	☐
37	나는 아이가 혼자 못 하는 이유를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찾는다.	☐	☐	☐	☐	☐
38	나는 개념을 끝내기 전에 기출을 훑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.	☐	☐	☐	☐	☐
39	아이는 수식을 말과 그래프로 바꿔서 이해한다.	☐	☐	☐	☐	☐
40	아이는 전에 틀린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것으로 복습을 끝내지 않는다.	☐	☐	☐	☐	☐

10문항 더 있습니다

앞의 40문항은 아이를 봤습니다. 이 10문항은 **나**를 봅니다.
아이의 공부 방식은 대체로 부모의 개입 방식과 짝을 이룹니다.

	1	2	3	4	5
41 아이가 몇 시간 공부했는지는 알지만,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른다. (R)	☐	☐	☐	☐	☐
42 성적이 떨어지면 먼저 '학원을 바꿔야 하나'를 생각한다. (R)	☐	☐	☐	☐	☐
43 아이에게 '왜 틀렸는지' 대신 '몇 개 틀렸는지'를 먼저 묻는다. (R)	☐	☐	☐	☐	☐
44 아이가 스스로 공부 방법을 정하도록 두는 편이다.	☐	☐	☐	☐	☐
45 아이가 모르는 걸 물어오면 답을 알려주기보다 어디서 막혔는지를 먼저 묻는다.	☐	☐	☐	☐	☐
46 아이의 성적표에서 등급 말고 '어느 유형이 약한지'를 읽어낼 수 있다.	☐	☐	☐	☐	☐
47 공부량을 늘리라는 말보다 방법을 바꿔보자는 말을 더 자주 한다.	☐	☐	☐	☐	☐
48 아이가 오래 고민하는 걸 보면 답답해서 개입하게 된다. (R)	☐	☐	☐	☐	☐
49 아이가 실패했을 때 원인을 노력이 아니라 방법에서 찾는다.	☐	☐	☐	☐	☐
50 내가 아이의 공부에 대해 아는 것 대부분은 아이 본인이 아니라 성적표에서 왔다. (R)	☐	☐	☐	☐	☐

축별로 옮겨 적는다

문항은 일부러 섞어 놔습니다. 축이 보이면 답이 오염되니까요. 이제 축별로 모읍니다.

빗금 친 칸 (R) 은 뒤집어 적는다.
1→5, 2→4, 3→3, 4→2, 5→1.
이 두 문항은 "나는 내 약점을 안다"처럼, 높게 답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문항입니다.

축	문항 번호 — 각 칸에 1~5 점수를 옮겨 적는다								소계
메타학습	1 _____	7 _____	12 _____	17 _____	22 _____	25 _____	27 _____	32 _____	_____
익힘	3 _____	6 _____	11 _____	16 _____	21 _____	31 _____	36 _____	40 _____	_____
읽기	5 _____	10 _____	15 _____	20 _____	26 _____	30 _____	35 _____	39 _____	_____
자기진단	2 _____	8 _____	13 _____	18 _____	23 _____	28 _____	33 _____	37 _____	_____
시험 대응	4 _____	9 _____	14 _____	19 _____	24 _____	29 _____	34 _____	38 _____	____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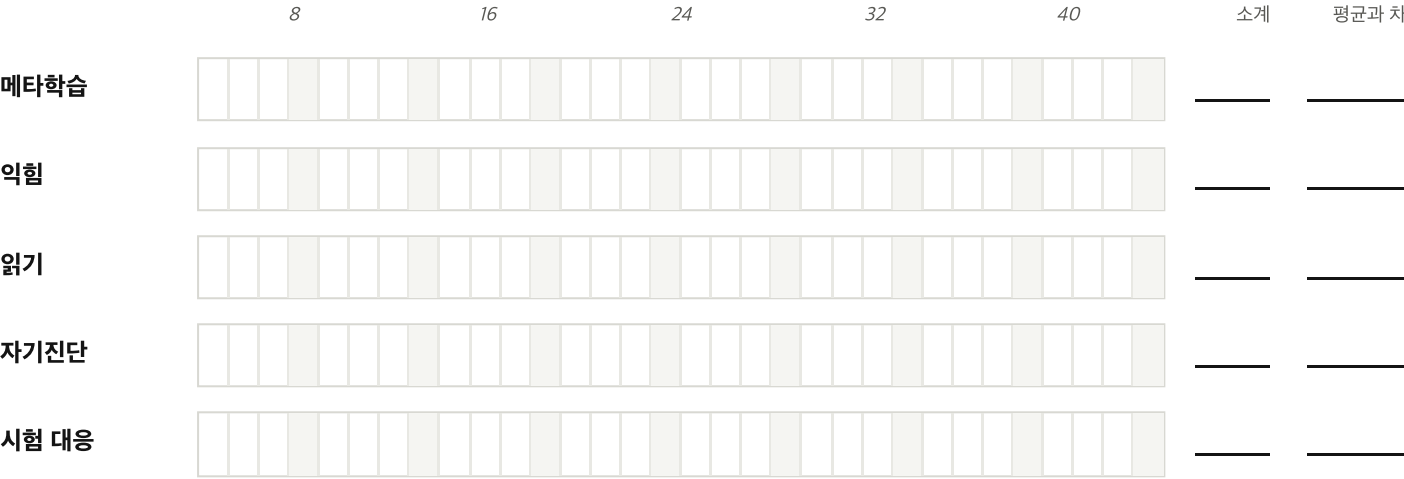
총점과 내 평균

다섯 소계를 더한다 → 총점 _____ (40~200)

총점 ÷ 5 = 내 평균 _____

칠하고, 가장 짧은 축에 동그라미

- ① 소계만큼 칠합니다. ② 내 평균(총점÷5) 위치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.
- ③ 오른쪽 칸에 소계 - 내 평균을 적습니다. 음수면 음수 그대로.



-5 보다 아래로 내려간 축이 오늘의 답입니다. 없으면 가장 작은 수.
절대 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편차를 봅니다. 전 문항에 5를 준 사람도 반드시 최저 축이 하나 나옵니다.

가장 낮은 축

여기에 적습니다. 하나만.

이 축의 해석을 다음 장에서 먼저 읽으면 됩니다. 나머지 넷은 나중에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.

내 개입 방식

1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. 축이 다릅니다. 따로 냅니다.
빗금 친 칸은 뒤집어 적습니다 — 1→5, 2→4, 3→3, 4→2, 5→1.

개입 방식	41	42	43	44	45	46	47	48	49	50	
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	_____

2부 소계 _____ (10~50)

두 점수를 나란히

1부 총점(40~200)이 **120 이상**이면 위쪽, 미만이면 아래쪽.
2부 소계(10~50)가 **30 이상**이면 오른쪽, 미만이면 왼쪽.
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.

아이 방식 ↑ · 내 개입 ↓ 아이는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	아이 방식 ↑ · 내 개입 ↑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.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.
아이 방식 ↓ · 내 개입 ↓ 여기서 시작합니다. 아이보다 내가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.	아이 방식 ↓ · 내 개입 ↑ 방향은 맞는데 아이 손에 방법이 없습니다. 여기가 가장 혼합니다.

아이에게 학생판을 따로 풀게 해보십시오.
두 점수가 크게 벌어지면 그 간격이 오늘의 대화 소재입니다.
누가 맞는지는 성적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.

아이 본인이 매긴 점수	내가 본 아이 점수	내 개입 점수
_____	_____	_____

읽기

축별로 무슨 뜻인가

메타학습 — 공부하기 전에 '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'를 먼저 묻는가

낮으면 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다.

책부터 편다. 문제부터 푼다. 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, 잘하는 애는 어떻게 했는지, 내가 그중 뭐가 부족한지 — 세 질문을 건너뛰는 채로 시간을 넣는다. 시간은 들어가는데 방향이 없으니 남는 게 없다.

높으면 — 방향은 잡혀 있다. 남은 건 그 방향을 손에 붙이는 일이다.

익힘 — 이해를 익힘으로 착각하지 않고 꺼내서 확인하는가

낮으면 — 이해한 것을 익힌 것으로 세고 있다.

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 단원이 끝난 걸로 친다. 그런데 이해는 넣는 일이고 익힘은 꺼내는 일이다. 꺼내본 적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처음 꺼내게 된다. 그때 안 나오는 걸 두고 사람들은 실수라고 부른다.

높으면 — 꺼내는 습관이 있다. 다만 꺼내는 간격이 촘촘한지는 따로 볼 일이다.

읽기 — 독해를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 대상으로 다루는가

낮으면 — 읽기를 능력으로 두고 훈련 대상에서 빼두었다.

읽는 속도는 이해 속도에 맞춰 굳는다. 그리고 대부분은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로 산다. 읽기가 막히면 전 과목이 같이 막힌다 —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다.

높으면 — 읽기를 기술로 다루고 있다. 버릴 문단을 고르는 훈련이 다음이다.

자기진단 — 문제를 채점 도구가 아니라 '부족한 나'를 찾는 도구로 쓰는가

낮으면 — 문제를 채점 도구로만 쓰고 있다.

몇 개 틀렸는지는 안다. 왜 틀렸는지는 '몰라서'로 끝난다. 몰라서 틀린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고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, 구분이 없으면 둘 다 더 외우는 걸로 대응하게 된다.

높으면 — 여기가 이 검사의 심장이다. 그런데 이 축은 자기 점수를 믿기 어려운 축이기도 하다.

시험 대응 — 교과 개념과 시험개념을 구분하고 경로를 설계하는가

낮으면 — 시험을 교과서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.

교과서 개념과 시험에서 뽑는 개념은 다르다. 교과서를 다 외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는 이유다. 출제자는 맞히라고 문제를 내지 않는다 — 틀리게 하려고 낸다. 그 전제가 없으면 함정이 함정으로 안 보인다.

높으면 — 규칙은 알고 있다. 경로를 손으로 그려보는 게 다음이다.

몇 점이 나왔든

160~200점 · 이미 어나더하다

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팔 게 별로 없다. 이 방향을 계속 가면 된다. 다만 위 막대에서 가장 짧은 축 하나는 보고 가라. 총점이 높아도 한 축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새는 게 결국 등급으로 나온다.

100~159점 · 방향은 아는데 손이 안 따라간다

알고는 있다고 답한 문항이 많은데,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한 문항은 적을 것이다.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가 이 점수대의 정체다. 어느 축이 무너졌는지는 위 막대가 말한다. 전부 고칠 필요는 없다. 가장 짧은 축 하나면 된다.

40~99점 · 재능 문제가 아니다

이 40문항 중 몇 개는 오늘 처음 봤을 것이다. 그게 답이다. 몰랐던 것이지 못 하는 게 아니다.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과 네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.

~~더 오래~~ 앉아 있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.

~~더 많이~~ 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.

가장 짧은 축 하나. 거기부터입니다.

그 축의 훈련은 anotherstudy.kr 에 있습니다. 무료로 열려 있는 것부터 해보면 됩니다.